

# 못 본 독립영화 이번에 관람하세요

광주독립영화관, 21일~9월 13일까지

‘기억의 전쟁’ ‘하트’ 등 6편 재상영

광주독립영화관(부관장 이세진)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 휴관으로 인해 상영 횟수가 적었던 독립영화 6편을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재상영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힘내자! 독립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 영화들을 놓친 관객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독립영화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상영작은 ‘기억의 전쟁’, ‘하트’, ‘바람의 언덕’, ‘작은 빛’,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장’ 등 총 6편이다. 이길보라 감독의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며 ‘하트’는 주인공의 솔직한 욕망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로 정가영 감독이 연출과 출연을 동시에 맡았다.

광주의 영화인들이 참여한 ‘바람의 언덕’은 엄마가 되는 것이 두려워 어린 딸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던 엄마와 그 딸이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이며, ‘작은 빛’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마주하는 모습을 그린 가족 드라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큰 역경 앞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방식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찬실의 삶을 조명하며, ‘이장’은 오랫동안 집안에 뿌리 박힌 가부장제와 차별을 위트 있고 날카롭게 그렸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GV(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22일 오후 3시 ‘바람의 언덕’ 상영 후에는 박석영 감독이 무대에 오르며, 9월 11일 오후 7시 ‘찬실이는 복도 많지’ 상영 후에는 김초희 감독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상영 시간표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바람의 언덕’



‘기억의 전쟁’

## 이승인 시문집 ‘도은선생집’ 광주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려 말 시인이자 대학자인 도은(陶隱) 이승인(1347)의 시문집 ‘도은선생집’(사진)이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도은 이승인은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과 함께 삼은(三隱)으로 꼽힌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은선생집’은 전남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이승인의 전체 5권 1책 가운데 권1~3권은 시집이고, 권4~5는 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은 요즘 책으로 보면 내용의 큰 분류를 나타내는 장을 뜻한다. 따라서 ‘도은선생집’은 1~3장은 시집, 4~5장은 문집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이다. 1406년 조선 태종의 명으로 간행된 이 시문집은, 조선시대 왕명으로 간행된 첫 번째 문집으로 꼽힌다. 현존본이 드문 희귀본인 탓에 2006년 동일 판본이 보물 제1465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남대 소장본은 보물로 지정된 판본에는 없는 중국학자들의 서문과 발문이 온전하게 남아 있어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도은선생집’은 책머리에 중국학자 주탁의 서문, 삼봉 정도전의 서문, 권근의 봉교서(임금의 명을 받고 쓴 서문), 변계량이 편찬했다는 내용이 있다. 본문 뒷부분에는 목은 이색의 발문과 중국학자 장부와 고손지 발문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전남대는 광주시와 함께 도은선생집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감안,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도립국악단은 오는 22일 오후 5시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토요공연 ‘남도풍류’를 선보인다.

## 전남도립국악단, 22일 토요공연 ‘남도풍류’ 재개

5개월만에...55석 한정 오픈 예약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하 국악단)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공연을 중단한 지 약 5개월 만에 토요공연 ‘남도풍류’를 재개했다. 22일 오후 5시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국악단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공연만큼 새 단장한 공연 포맷으로 관객을 맞는다.

이날 KBS 사랑의 리퀘스트, 인간극장 내레이션으로 알려진 성우 은영선이 진행자로 등장하며, 소설의 시 ‘접두사’를 모티브로 한 국악실내악 ‘접두

사’, 영화 ‘귀향’ OST ‘가시리’, 모듬북 합주곡 ‘say 타’, 국악실내악 ‘오래된 미래’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공연 속 코너로 관객과 함께 국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국악 톺아보기’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국악단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55석만을 한정 오픈해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 공연은 전남도립국악단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관람료 일반 1만원. 문의 061-980-995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연극적 환상’ 배우 28일까지 공모

광주시립극단이 제15회 정기공연 ‘연극적 환상’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연습 및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15여명의 배우를 모집하며 코믹 연기 능력자는 우대한다.

접수는 28일 오후 4시까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31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한다. 응시자는 필수로 지정연기, 선택사항으로 기타 자유연기 및 특기사항(춤, 노래 등)을 준비하면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3일 발표 예정이다.

‘연극적 환상’은 프랑스 고전 희극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17세기 유럽 대륙을 풍미했던 프랑스 고전주의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 불리는 피에르 코르네유의 작품으로 희극과 비극이 함께 어우러진 연극이다. 프롤로그인 1막을 지나 2~4막까지 소란스런 연애 이야기를 다룬다.

이번 공연은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선유현이 연출을 맡으며 오는 11월 19~21일에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82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목포서도 독립영화 볼 수 있다

시네마라운지MM서 21~23일

목포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장·단편, 예술, 독립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영화제가 목포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제7회 목포국도1호선 독립영화제’가 오는 21~23일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에서 펼쳐진다.

목포국도1호선 독립영화제는 지난 2014년 목포에서 시작하는 국도 1호선 신의주까지 다시 연결 되길 바라는 소망에서 시작됐으며 씨네로드가 주관한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7시 30분 (구)조선내화 맞은편 공원에서 개최된다. 개막식 전 드림뮤직밴드의 개막공연이 열릴 예정이며 이날 오후 8시 10분에는 개막작 ‘소년, 소녀를 만나다’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장은연 감독과의 대화시간이 마련된다. 이 작품은 로자파 국제영화제 공식경쟁부분, 팬보이 국제영화제, 마리에타 국제영화제,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등에 초청됐으며, 북한 소녀 사진이 남한 우영의 집으로 흡스테이를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첫사랑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이다.

이어 22일에는 신나리 감독의 ‘늑’, 송현진 감독의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이윤지 감독의 ‘함께 살게’, 장재원 감독의 ‘왕왕’, 송현우 감독의 ‘자전 거도독’을 상영한다.

또 황옥영 감독 ‘달려라 택배’, 장형은 감독 ‘무렵은 이제 관뒀어’, 한승원 감독의 ‘유리창’, 김윤선 감독의 ‘지구 최후의 계단’ 등 8편도 스크린에 올린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커뮤니티 시네마’로 있는 목포 문화 포럼도 예정돼 있다. ‘커뮤니티 시네마’는 지역 시민의 영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문화



‘소년, 소녀를 만나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은 목포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박혜선 프로그래머가 맡았으며, 발제자는 목포 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의 정성우 감독, 전주 무명씨네의 이하늘, 부산 모퉁이 극장의 김현수, 아트하우스 모모의 큐레이터 이계영 등이 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한재원 감독의 ‘미미:궁극의 식사’, 정재훈 감독의 ‘아귀도’, 이채영 감독의 ‘한걸의 흔적’ 등 10편이 상영된다.

폐막작으로는 연송하 감독의 ‘나의 순간들’이 선정됐다.

이밖에 영화제 기간동안 ‘바닷가에서 퀴즈’, ‘스탬프 투어’, ‘프리즘 오브 전사’, ‘책방 담고’, ‘우리동네 영화관’, ‘감독과의 대화’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영화제 일정은 목포국도1호선 독립영화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참조.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명품우수선전문점</b></p> <p>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우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p>	<p><b>일번지식당</b></p> <p>나주시영산포로284(구.영산포역도로변) 축산물, 떡배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떡배기불고기, 불고기비빔밥,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p>	<p><b>the 사라해어</b></p> <p>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커피, 염색, 일반편,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너 ☎ 062)522-2380, 010-8200-9182</p>	<p><b>동양철학원</b></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b>국수나무 광우용봉점(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b>약초당건강원</b></p> <p>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파·홍삼·생약초즙·봉어즙·경어즙 담발즙·침즙·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p>	<p><b>인철(仁喆)익스프레스</b></p>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p><b>어주민물장어탕</b></p> <p>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82번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p>
<p><b>(유)신화로프</b></p> <p>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횡관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p>	<p><b>미가한우명가</b></p> <p>나주시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옆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p><b>비비가</b></p> <p>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amp; 해산물 비빔밥전문가(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초밥, 화제트) ☎ 062)229-1008, 010-8572-0999</p>	<p><b>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b></p> <p>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매매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p>
<p><b>고전방</b></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우리식당</b></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b>신신예술의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b></p> <p>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앞) 삼전대봉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p>
<p><b>한성꽃화원</b></p> <p>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주·축화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b>석당화랑</b></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b>초대화랑</b></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박당화랑</b></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